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사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1:21)

주간 충현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장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가라

2005년 상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수요 성경공부(신설)

교육기간: 3월 16일 ~ 5월 18일 (10주간)

강의시간:

· 오후반: 3:00 ~ 4:30

모세 오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루영의 묵시) 제1교육관 307호

역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안창덕 묵시) 제1교육관 407호

· 저녁반: 8:00 ~ 9:30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조규오 묵시) 제1교육관 307호

교사 양성부

교육기간: 3월 13일 ~ 5월 22일 (11주간)

장소: 베다니홀

강의시간: 매 주일 오후 3:00 ~ 4:30

찬양대원 양성부

교육기간: 3월 13일 ~ 5월 29일 (12주간)

장소: 제1교육관 304호

강의시간: 매 주일 오후 3:00 ~ 4:30

충현전도대원 훈련

교육기간: 3월 16일 ~ 5월 22일 (8주간)

장소: 베다니홀

강의시간: 매 주일 오후 1:30

(*교육훈련원 학생모집 신청서가 교육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요 1:1).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만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할 때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덮어 버리고, 어떤 종교 행위에만 열중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며, 그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벌써 올해도 2월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말씀을 외면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매주 발행되는 <충현성경통신강좌>를 통해서 성경 일독을 시작하십시오. 성경 일독은 필수이며 2독 이상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충현의 만나>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새기십시오. 말씀을 적당히 게쳐두고 신앙 생활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참 성도(행17:11)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월 9일 ~ 3월 26일

지난 주에 있었던 2005년 제1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청지기 훈련은 충현교회 단일집회로는 최초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분당은 물론 갈릴리, 베다니홀까지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보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함을 깨달았다는 것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란 세상의 힘으로 존재하지 않고, 육신의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사람인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의 나 됨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내가 되고자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임입니다(고전 15:10). 성도는 기도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계속되고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력 교구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3월에도 부활을 소망하며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력 교구표

일 시	교 구	일 시	교 구
2월 28일(월)	4, 7, 10교구	3월 10일(목)	2, 11, 16교구
3월 1일(화)	5, 8, 15교구	3월 11일(금)	9, 12, 17교구
3월 2일(수)	2, 11, 16교구	3월 14일(월)	3, 6, 13교구
3월 3일(목)	9, 12, 17교구	3월 15일(화)	1, 14, 18교구
3월 4일(금)	3, 6, 13교구	3월 16일(수)	4, 7, 10교구
3월 7일(월)	1, 14, 18교구	3월 17일(목)	5, 8, 15교구
3월 8일(화)	4, 7, 10교구	3월 18일(금)	2, 11, 16교구
3월 9일(수)	5, 8, 15교구		

*오늘(27일) 찬양예배 시 2005년 제2차 학습세미나가 있습니다(다움(유세라)는 오후 3시 갈릴리움).

*2005년 제2차 성찬식: 다음 주일(3월 6일) 1부에서 5부 예배 시에

계속되는 선교 열기! 선교 훈련(CMTC)!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자

선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안타까워하며, 슬퍼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마 9:36, 눅 19:41)이었고,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롬 9:2,3).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이 멈추었을 때 두 눈에 눈물이 마르며 외식적인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계속되고 있는 선교의 열기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훈련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3월 6일) 제4차 CMTC 훈련이 있습니다.

TABLE OF THE LORD

***"You cannot drink the cup of the Lord and the cup of demons;
you cannot partake of the table of the Lord and the table of demons."
(1 Corinthians 10:21)***

It is alarming to see Christians give little notice to the Lord's Table, while paying close attention to lunch or dinner invitations with others. They will spend extra time preparing themselves to sit down with important public figures, like the president of some company or country, but not with the Lord Jesus Christ. Celebrating at the Lord's Table is the most important and serious event of all time. Please do not take it for granted, like the Corinthians in today's Bible verse. Paul talked to them about the table of the Lord and the table of demons, which means they did not understand the difference. Their hearts were misdirected, not focused on the significance of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Before Paul spoke the words in 1 Corinthians 10:21, the apostles used the phrase "the breaking of bread" to refer to the Lord's Table. Acts 2:42 shows that after Pentecost, when Peter and the rest of the apostles shared the gospel message with thousands of people, about three thousand of them got baptized, and continuall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Luke 24:35 also shows the Emmaus disciples using this expression, "They began to relate their experiences on the road and how He was recognized by them in the breaking of the bread". At this time, believers used the expression "the breaking of bread", instead of the Lord's Table. Paul, for the very first time, used the phrase "table of the Lord" in today's Bible verse in place of "the breaking of bread."

He wanted to emphasize the deep historical, theological, and eschatological meaning of this holy celebration, so that Christians could understand its importance, and partake properly. Whenever "the breaking of bread" or the partaking of "the table of the Lord" occurs, there is always a vertical relationship with God and a horizontal fellowship with others. Jesus instituted this special time of celebration at His last supper with His disciples. He explained to them that the bread and cup at this meal represented His body and blood, and He asked them to eat the bread and drink from the cup in remembrance of Him (see 1 Cor. 11:24&25). He wanted them to experience together the tremendous blessings of His love through the cross.

Jesus started something new, based upon something old. His last meal was during Passover. This special time of celebration

began in the Old Testament when Israel received the good news that death would pass over them if they sacrificed a lamb and pasted its blood upon their doorposts. The blood of the lamb saved them from punishment, which was representative of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They became a new nation, with freedom and many new things, just like Christians become new creatures, free from sin and filled with new life.

The early church consummated the breaking of bread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Acts. 20:7), and their regular remembrance of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is a wonderful example of the practice of faith. They understood that the bread and cup, which they ate and drank, represented Jesus' body and blood. They remembered His death and resurrection during this special meal because He asked them to. Everyone knows that human beings need blood in order to sustain life. Jesus died for our life! His body and blood give us eternal life! He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rselves" (Jn. 6:53). He even explained,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he who eats Me, he also will live because of Me" (Jn. 6:57). The Lord Jesus gives spiritual fruit to all who believe in Him, and partake of His Table.

The Bible tells us,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 11:26). Our Lord is returning. He is preparing our eternal homes. We now celebrate His death and resurrection in faith, but one day soon, we will celebrate with Him in person, face to face. Revelation 19:9 says, "Blessed are those who are invited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The "table of the Lord" is an important expression that Paul used to help us understand the historical, theological, and eschatological meaning of this special celebration. The result is a beautiful relationship with God and each other. We need the Lord's Supper. As this is the fourth Sunday of Lent, and we are thinking about the death of Jesus, let us remember the foundation and meaning of the Lord's Table. As a believer, prepare yourself to come now, eat, and drink at the table of the Lord. Please do not disregard His invitation, or hold it with little respect. 

주의 만찬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예치 못하리라” (고전 10:21)



김성원 목사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소홀히 대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을 어떤 점심 약속이나 저녁 초대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 사장이라든지 이름 꽤나 알려져 있는 사람과 만나는 자리라도 되면 치장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든지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일은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더없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주의 만찬을 으레 치르는 행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고린도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벗어나 있었습니까.

주의 만찬의 기원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바울이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까지 사도들은 “떡을 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 후, 베드로와 사도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 결과 삼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2)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눅 24:35).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의 만찬”이라는 말 대신 “떡을 떼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실제적으로 쓰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

바울은 이 성스러운 의식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닌 역사적, 신학적, 종말론적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떡을 떼는 일” 즉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곧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특별한 의식을 그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나누는 떡과 잔이 자신의 몸과 피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자신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타나게 될 놀라운 은혜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의미

예수님은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신 때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계

양이 그들을 넘겨가게 된 복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에서 구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마치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진정한 자유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학적 의미

초대 교회는 “안식 후 첫 날”을 “떡을 떼는 날”로 정했습니다(행 20:7). 초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기적으로 기념함으로써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이 특별한 식사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 내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 6:53). 예수님은 덧붙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요 6:57).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종말론적 의미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우리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현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지만, 곧 임할 그 날에는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이 기쁜 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의 만찬”이라는 말은 바울이 역사적, 신학적, 종말론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했던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만찬이 필요합니다. 사순절 기간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의 만찬”의 기원과 의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기에 앞서 신자로서 자신이 참된 믿음 위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초대를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경의심 없이 그저 하나의 의식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음의 의미를 기념하며 주의 죽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

장로 칼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로 ④

교회는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교부 내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 거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의 소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신학교의 교육과 교회의 양육을 통하여 현지의 사역자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현진신 선교사 준비생)

저는 구소련의 Z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공산당 교육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회교도인 친척들은 저에게 알라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시절 저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 는 이쪽 회교도의 풍습에 따라 18세에 일찍 결혼을 하였습니니다. 저는 제 남편을 인생에서 유일한 의지할 수 있는 사 람으로 생각했고 정말로 남편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1991년 남편 직장의 전근으로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없 었지만 그래도 오직그리스도 그 도시에 있는 침례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서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때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 사람 들이 좋아서 계속 교회에 다녔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성경책도 처음 보았지만 저에게는 먼 옛날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000년에 남편과 함께 한국에 오 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제가 일하던 공장의 사장님이 충현교회로 이사했고, 그 분의 권유로 충현교회 외선부 예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해 외선부 겨울 수련회 때 지 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갑자기 하나 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껏 제가 저질렀던 죄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고, 그 동안 배웠던 성경 말씀과 복음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 복음 중심의 신 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전도사님과 자주 심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80% 이상이 회교도인 우리 민족에게 제 마음 속 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의 사랑이 제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의 친척이 우리 가족을 버 려지라도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편 역 시 저를 적극 지원해 주며 같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저는 언어나 생활 환경이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 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제 가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소개할 것입 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 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롬 3:23, 6:23) 그들에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이 문 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 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믿고 타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 생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저의 인생과 삶을 예수님께 맡긴 것처 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히 구원의 주님 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기도의 불길, 전도의 불길



부끄러움 일지지만 저는 아직까지 전도의 열매를 맺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다 주님 앞에 종용하기 그지없습니다.

선교 가기 전 조카를 전도해 교회에 데려왔습니니다. 그러나 오늘은 삼촌 때문에 왔지만 다음엔 오 지 않겠노라는 조카의 행동을 듣고 전도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니다. 혼자서 교회 주변 전도 를 해 보았지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후 충현전도대에 들어가 교

육을 받으며 수요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뒤 대원들과 함께 나가니 담대하게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역삼동 일대는 서울에서도 유명한 유흥가로 세상 쾌락과 황금 만능주의로 타락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을 버리지 않으시고 충현교회를 통해 역삼동을 복음화시킬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니다.

특히 2005년에는 교회가 남녀전도회를 중심으로 교회 주변에 십자가 복음을 일년 내내 전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요! 이제 이곳의 악한 사탄의 세 력이 물러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를 나가면 건물은 최신 경비 장치로 굳게 문이 닫혀 있어 접근하기가 어렵고, 원통 주책에는 벨을 눌러도 반 응이 없습니다. 때론 다중교인들의 싸늘한 거부 반응을 대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 지만 하나님께서 인젠가는 이 역삼동 일대를 복음화시키실 것을 굳게 믿습니니다. 우 리 충현전도대는 오직 영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칼바람이 부는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어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언제나 큰 힘을 주십니다.

일흔이 넘으신 권사님과 전도를 나간 어느 수요일, 권사님의 열심에 우리 모두가 더욱 힘을 얻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지가 한 장 남았을 때 이 분께 전할까 기도하던 중, 여교생을 만나 전도지를 건네자 옆에 계신전 권사님이 그 학생 을 붙잡고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했습니다. 10분 정도 길 에서 말씀을 들은 여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그 학생 의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예비하신 귀한 영혼을 만나게 하

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영아부에서 모든 제직에 이르기까지 역삼동 교회 주변을 다닐 때마다 기도드리게 하고, 그리고 성과 같은 이 지역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고 적극적으로 전도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님,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 게 하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이 책고 부패한 역삼동을 태우시고 정결케 하셔서 광활하고 완악한 심령에 십자가의 복음이 섬어져 열매 맺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역 삼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전도 현장으로 나갈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이 처럼 기도합니다.

이선훈(집사, 12교구)

한 영혼을 위한 증인들의 고백

은총을 입은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금요집회 때에 고백했던 선교 보고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하나님 감사합니다.
- *매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2월 21일(월)~3월 11일(화)	13교구 3지역	최정남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3월 3일(목)~3월 11일(금)	직역2	이철호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2월 11일(금)~2월 22일(화)	대학부17	윤해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지 닦고 기도합니다.
(선교기도회: 매주일 오후 4:00 / 갈릴리움)

방림교회와 함께하는 2박 3일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방림교회에서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저는 세속식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발을 씻어 주면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맨 장난치고, 말 안 들던 아이들도 이 때 만큼은 진지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아이가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가르치는 저보다 오히려 그 아이의 믿음이 더 크고 귀하다고 생각되어 부끄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품에 안아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니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저희들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준비 기간도 짧았고 많이 부족했지만 프로그램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아이들이 기쁘게 참여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부 집회 때, 방림교회 사역에 관한 광고를 들으면서 나오는 상관없는 사역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방림교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주님께서는 저를 그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준비 기간도 짧고 많이 부족한 데다, 또 준비 기간 중에 중등부·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것들을 더욱 풍성히 채워 주셨습니다. 사역이 끝나고 지금은 아이들과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항상 생각하며 교회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보람 (대학부)

청지기 훈련을 마치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혼자 계시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다.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을 찾아서 예수님은 홀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셨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눅22:44)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22:42) 이것이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다.

새로운 직장 환경에 적응하고 낯선 업무를 파악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청지기 훈련 때 겨우겨우 시작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다. 자신이 직접 기도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목사의 말씀을 통해 나의 게으름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 자신의 약한 기도의 심령을 알았고, 매일 매일 죄에 시달리며 쓰러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 시간이었다.

마음과 행동을 이곳저곳 분산시켜 부산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세가 일상에서도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 26:41).



김정원 (세교측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근심 있으랴!

2월의 첫 주별 성경공부(GBS)가 참 평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참으로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평안하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하며 일상에서도 서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평안과 세상에서 말하는 안녕과는 엄밀히 그 의미가 다르며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이며 안식임을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한 저에게 훈련소의 생활은 많이 낯설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 하지만 매주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찬송가 455장은 근심 많은 저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비록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항상 같이 있고 있다는 생각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군생활에 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 찬송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찬송의 일부가 아닌 제 삶의 꽃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이며 평화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즐거움과 평안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얻는 안식과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겉데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진짜이며, 주 안에서 얻어지는 평안이 참 평안인 것입니다.

저의 삶 속에서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친구처럼 고민을 들어 주시고 슬픔을 같이 슬퍼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처음과 끝을 같이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항상 찾으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얻는 평안에 항상 감사하면서 455장 찬송처럼 내 앞길에 멀고 험할지라도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신준성 (청년1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국일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마 4:19).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일꾼을 삼으시기 위함이다. 이번 유아부 성경학교를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우리 유아부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전국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일꾼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한 명의 일꾼도 부르심이 없이 쓰임받는 자들이 없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축성스럽게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처럼 우리 유아부 아이들도 한 어린이 한 어린이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 물론 그 방법과 쓰임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 그 결론은 같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일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일 것이다. 4살, 5살 된 아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하겠느냐고 하겠지만, 그 아이들의 믿음이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이처럼 우리는 다 하늘나라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 또한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어야 한다.

나는 이 아이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나와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믿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성경학교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21,22일 있었던 성경학교가 큰 은혜 중에 마쳤습니.



황은정 (유아부 교사)

교회탐방 54 외선부 L국팀

함께 진리 안에서

인간이 쌓은 바벨탑으로 인해 낙되어진 언어는 열매에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높아진 바위는 벽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 안에서 허물어지고 만다.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왔지만, 복음으로 변화하고 친구들을 전하고도 모국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할 일을 꿈꾸는 외선부 지체들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은 L국팀의 몇 분을 만나 보았다.

L국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L국팀은 외선부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팀입니다. 현재 교사 8명과 학생 10~15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광주와 외선부에서 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직 문제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때때로 심방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광신 교사)

어떤 경위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저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로워하던 중 친구 신하와 소개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가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조금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히 믿고 아침, 저녁으로 저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전 지진 피해 때에는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역시 가족들은 무사했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프리디)

"저는 돈을 벌기 위해 갔고 싶어 한국에 왔습니다. 원래 모국에서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 몰랐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보살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란진)

"6년 전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불교신자였고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다녔습니다. 부처가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 나사 교회에 나오지 않은 적도 있지만 한 집사님의 도움으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믿어졌습니다. 언젠가 예레미야서를 읽던 중 어디서든 나를 도와 주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실화)

실화 영제는 현재 신앙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읽던 중 저만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족들과 모국의 다른 사람들도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화)



L국으로 단기선교를 가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란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것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담긴 책이나 전도서를 전하면 두고두고 읽어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하지만 잘 받아들이는 않습니다.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세요.

"지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처한 L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충고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지진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집은 어떤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교회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프리디)

"지진 피해를 복귀하는데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란진)

"해일 피해 후 많은 변화가 있는 이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광신 교사)

"언제 L국팀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쉽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너무 조금씩 결과를 바라지 말고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지은 전도사)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아마도 편하게 살았던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빛을 갖고 가족들과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란진)

"광주와 서울을 순교하여는 L국 지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광신 교사)

"내 안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합니다. 현재 내에게는 가족도 집도 아무 것도 없지만 그국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프리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실화)

지금 이들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해 뜨거워져 있다. 이들의 눈에는 성경이 아닌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 아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니 주님 그리고 이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영혼을 생각하니 정말 기쁘다.

(편집실)

다음 주일 찬송

284장 주 예수 해변서

이 곡은 메리 아테미시야 레드베리(Mary Atemis'Ann) Lathbury, 1841~1913가 1877년에 작사한 찬송이며, 작곡은 윌리엄 피스커 셔먼(William Piske Sherwin, 1826~1888)이 1877년에 찬송시로 작곡했다.

이 곡의 배경은 주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성경 말씀이 그 바탕이 된다. 작사자 메리는 스위터가 호수 언덕에 서서 이리 멀리 저리 멀리 멀리 떨어진 예수님의 많은 무리들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 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호수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해변에서 생명의 떡을 먹여 주신 것처럼 배부르게 해 달라는 간구로 시를 쓰게 된 것이다.

1절은 예수께서 뱃사람들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원을 먹이셨던 장면을 생동감있게 묘사한 사슴이 사자들을 찾아가 갈릴리 해변에 많은 무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

2절은 영생의 양식을 우리들의 주님께서 묵도하고 갈릴리 해변의 사슴들에게 과거 갈릴리 해변에서 하늘 양식으로 그 주를 찬양하며 주신 것처럼 갈릴리 해변을 사슴들이 주를 찬양한다.

3절은 죄와 사탄의 사슬에 얽매인 우리 성령 가운데 전자의 말씀이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하며 찬양한다.

4절은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아들은 영이 밝아지며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우리가 진리를 바로 발견하고 깨달아 알도록 생명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찬양한다.

이제 2005년 두 번째 성찬식이 다음 주일 시행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의 많은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도 갈릴리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주의 성찬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위원회)

몸된 교회를 위한 믿음의 손길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희와 도덕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연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윤희적으로 교만한 종교인이 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함을 하거나 기부를 할 때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집사(79세, 1교구)는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일(2억원 상당의 자재를 사주(주)를 했음에도 한사코 자신을 감추고자 했습니다. 예전에 비웃을 일을 하신 분들에게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감사했고, 그 마음으로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몸된 교회를 위한 이와 같은 믿음의 손길이 곧 참 영원한 천국을 위한 길입니다...(하 6:20).

"교회"는 감사의 뜻으로 훌륭한 집사 사후(死後) 모든 장례일정과 추헌등신 안치를 약속했다.

새 · 아 · 족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41	김종민	19	외선부	박현민(10)	555	김종수	7	외선부	장준서(11)	569	김경희	12	외선부	박종민(14)	583	김종민	3	외선부	박준서(17)
542	이종민	19	외선부	박현민(10)	556	김종수	3	외선부	장준서(11)	570	서지현	12	외선부	박준서(14)	584	한성	17	외선부	박준서(17)
543	김종민	9	외선부	김종현(14)	557	김종수	12	외선부	장준서(11)	571	김종민	8	외선부	박준서(11)	585	한성	17	외선부	이종민(13)
544	노재민	13	외선부	전성환(14)	558	김종수	3	외선부	장준서(11)	572	김종민	18	외선부	김종현(17)	586	이종민	19	대학부	김종민(16)
545	최인성	7	외선부	박혜숙(14)	559	김종수	3	외선부	장준서(11)	573	박종민	17	외선부	남종민(15)	587	김종민	19	외선부	김종현(17)
546	최인성	7	외선부	박혜숙(14)	560	박종민	3	외선부	장준서(11)	574	정종민	1	외선부	박준서(11)	588	정종민	19	외선부	김종민(16)
547	김종민	19	외선부	이종민(13)	561	정종민	3	외선부	장준서(11)	575	정종민	1	외선부	박준서(11)	589	정종민	19	외선부	박준서(17)
548	홍종민	19	외선부	이종민(13)	562	김종민	19	외선부	장준서(11)	576	김종민	19	외선부	박준서(11)	590	김종민	19	외선부	박준서(17)
549	조종민	19	대형부	정종민(14)	563	김종민	19	외선부	장준서(11)	577	김종민	19	대형부	김종현(16)	591	우종민	19	중등부	김종민(16)
550	김종민	19	대형부	정종민(14)	564	정종민	1	외선부	장준서(11)	578	정종민	1	외선부	박준서(11)	592	우종민	19	중등부	김종민(16)
551	이종민	19	외선부	장종민(15)	565	정종민	1	외선부	장준서(11)	579	송종민	19	대형부	박종민(13)	593	정종민	19	중등부	김종민(16)
552	이종민	19	외선부	조종민(16)	566	김종민	1	외선부	장준서(11)	580	정종민	13	외선부	김종현(17)	594	박종민	19	중등부	박종민(16)
553	김종민	19	외선부	박현민(10)	567	정종민	1	외선부	장준서(11)	581	김종민	6	외선부	이종민(16)					
554	이종민	7	외선부	전성환(14)	568	정종민	1	외선부	장준서(11)	582	정종민	6	외선부	이종민(16)					

※ 찬송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임

1. **팀장 순회회**
일시: 3월 1일(화) 10:00~16:00
장소: 제2교육관 4층(1~4층)
대상: 2015년 단기교직원 예정자
 및 안수집사 전원
2. 권사 1지회 참례회
일시: 3월 2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렙회
3. 남내전도부 전도회장 지부별
참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1.지구 제1교육관 501호
 2지구 제1교육관 507호
 3지구 제1교육관 702호
 4지구 제1교육관 601호

별세

1. 김다수 씨 김부수 집사의 부친, 30
경숙 성도의 시모, 16교구 평촌6구
역/20일 별세, 22일 장례
2. 김인식 성도 김말금 은퇴집사의 남편,
김준덕 성도의 부친, 1교구 목동
2구역/21일 별세, 23일 장례
3. 김도현 집사 최은희 집사의 남편,
교구 총원2구역/22일 별세, 24일
장례
4. 박구례 타고교사 김인수 집사의 모
친, 전은실 집사의 시모, 13교구 화
곡구역/24일 별세, 26일 장례

결론

1. 임학수 군 (임현웅 성도, 유복심 군)

의 아들, 127구와 이명길 양(이
근의 아들, 유송석 아들, 109구)
5월 1일(월) 1300 길림파
D.une K. Schönlank (D.une K.
Schlöke, D.une J. Schönlank의 아들,
119구와 비제덴 양(유경석 아들,
117구)
5월 11일(수) 1301 길림파
1230 호수지
김원우 군(강석 아들, 경조과 제이
아들) 조상희 양(김준수 장도, 김
순하 장도의 딸, 62구) 5월 11일
1500 길림파
신갑근 군(진경호 아들, 안호진 장
남의 아들, 127구와 문원일(장
봉호 아들, 150구)
5월 13일(금) 1302 길림파
1500 장대석씨를 삼박씨 2장
(조전 장대 삼박씨 1번 출구)
5월 13일(금) 유송석 아들, 109구
과 이복인 양(이현양 안두성씨, 신
영희 딸의 딸, 72구) 5월 13일
1500 길림파
권한배 군(관모씨 아들, 집배는 제이
아들) 박정희 양(대관씨 딸, 집배
아들) 5월 13일, 72구) 5월 13일

(도) 1200 프레이지먼트
 펠트용 357-3131
 7. 이삼근 군 (이만수 권
 도사의 아들, 밀알교
 정보영 양 (장재손 집
 사의 딸, 평강교회)
 1300) 한국 기독교연
 강당 (1호선 종로5가역
 8. 이준환 군 (이승남 성도
 아들, 2교구파 집전인
 사, 임명숙 권사의 딸,
 교회) / 3월 5일(토) 14:
 00전환 (7호선 고속터
 민)
 9. 정경준 군 (장수명 집사
 의 아들, 3교구파 조은

씨(딸) / 3월 5일(토) 16:30 국방3
관 1층 태극홀 ☎ 748-0707

주소변경

1. 이하영 은퇴장로 민간식 은퇴권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031번지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교회 주변 전도의 날)

일시: 3월 9일(수) 오전 11:00

대상 : 전 교인 (교구별 여전도회 중심)

- 진행: ① 수요1부 예배 ② 교구별 영성훈련
③ 여전도회 월례회 ④ 교회주변 전도 실시

◆ 청년1부 겨울수련회

주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
일시: 2월 28일(월) 오후 730 ~ 3월 1일(화) 오후 400
장소: 충현기도원 (버스출발: 28일 오후 730 본당 앞)

◆ 청년2부 겨울수련회

주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
일시: 2월 28일(월) 오후 7:00 ~ 3월 1일(화) 오후 4:30

▲ 2005년도 신바람! 수학그림 개편

일자: 3월 27일(주일) ~ 7월 31일(주일)
시간: 오후 3:15 ~ 4:30
장소: 재건교우관 207호

3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담

연월	일	주일예배 (진로)					친양예배	수요예배	
		I	II	III	IV	V		I	II
3	6	최치윤	최무길	한승주	오진국	조종환	구재완	이춘희	전종렬
	13	안종욱	김영달	최희호	배준식	김영은	송두섭	이상록	이승훈
	20	남남수	안석현	최의철	이종식	엄필성	박승민	이금숙	강은옥
	27	신상수	김광남	김종국	노영환	이갑재	이부성	유현준	전영혜

이번 주 사순절 새벽기도회 담당

	28(월)	1(화)	2(수)	3(목)	4(금)	5(토)	6(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이계인	안창덕/김재춘	안창덕/한만혁	안창덕/이기옥	안창덕/강신천	여국근/김정연	이현덕/조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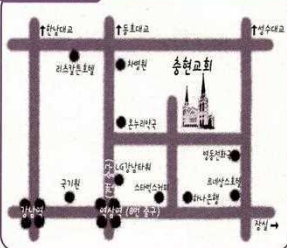
예배담당 안내 (3/2~3/6)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3/2	수요일	최침에 돌린 사람은 (호산나 찬양대)	안창덕	김지현	복 있는 자 (시 32-1:2) 김성관 목사
3/2	수요일	나의 갈 길 다기도로 (실로안 찬양대)	정성영	한기희	예루살렘에 올라 가는 길에 (막 10:32-41) 황진섭 목사
3/4	금요일	테너 유년을 대학부로 옮김	김진록		
3/6	주일 I	(예배 전 찬양)	정종신	최희승	주의 만찬 (고전 10:21) 양재용 목사
3/6	주일 II	주 예수 해방시 외바리새인 장편희(할렘루아 오케스트라)	고광민	최무길	주의 만찬 (고전 10:21) 정진호 목사
3/6	주일 III	주 예수 해방시 외바리새인 장편희(할렘루아 오케스트라)	정환민	한규술	주의 만찬 (고전 10:21) 김성관 목사
3/6	주일 IV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외 소프라노 화성아벨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국근	오진국	주의 만찬 (고전 10:21) 양재용 목사
3/6	주일 V	내 주는 살아 계시고 외 소프라노 조혜진(별관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정선	조종환	주의 만찬 (고전 10:21) 안창덕 목사
3/6	주일찬양	만도린 연주대(가브리엘 찬양대)	안치영	구재환	돌아오는 자의 기쁨 (눅 15:20-24) 김성관 목사

2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위임직무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지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모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 ② 2005년 하반기에 쓰임받은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충성의 또 첫차기와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배풀어 주소서.
- ③ CMTC 훈련과 전도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 ④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⑤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⑥ 2월에 진행될 교회학교의 겨울 계절학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입문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 ⑦ 대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헌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해,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일철야	오후 10:30	금요일집회 후 본당 앞출발

■ 시무장로

김진철 22.02.27	김은호 22.02.27	노광민 22.02.27	오준근 22.02.27
임영진 22.02.27	이 훈 22.02.27	남순우 22.02.27	김영민 22.02.27
최두길 22.02.27	이창호 22.02.27	차신록 22.02.27	김광현 22.02.27
장영호 22.02.27	기재현 22.02.27	이금태 22.02.27	전종훈 22.02.27
안종욱 22.02.27	전단우 22.02.27	황인영 22.02.27	한승규 22.02.27
이정우 22.02.27	김진태 22.02.27	이희우 22.02.27	이도현 22.02.27
김진석 22.02.27	원윤철 22.02.27	고영수 22.02.27	안동현 22.02.27
김기우 22.02.27	최현민 22.02.27	이계인 22.02.27	박덕일 22.02.27
정도현 22.02.27	박종우 22.02.27	전명호 22.02.27	조종환 22.02.27
김영태 22.02.27	이성호 22.02.27	최지우 22.02.27	노연현 22.02.27
정청길 22.02.27	신상수 22.02.27	고계수 22.02.27	강철현 22.02.27
이덕윤 22.02.27	장철현 22.02.27	김승문 22.02.27	함정식 22.02.27
기현진 22.02.27	안석현 22.02.27	전영민 22.02.27	김정국 22.02.27
임정식 22.02.27			

김성관

[illegible]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